

# 韓방송史 바꾼 'SKY캐슬', 미약했던 시작 창대한 결과



시작은 미약했지만, 결과는 창대했다. 1%대의 시청률로 시작한 'SKY캐슬'이 한국 드라마 역사를 바꿨다

## 1%대→22.3%...역대 비지상과 최고 시청률 기록

에 비지상과 드라마 시청률의 새로운 역사를 쓰게 됐다.

'SKY캐슬'의 신기록 경신이 더욱 의미가 있는 이유는 첫방송부터 지금까지 보여준 가파른 시청률 상승세에 있다. 최고 시청률 38.8%를 기록한 메가 히트작 KBS '태양의 후예'를 쓴 김은숙 작가의 차기작이자 공유, 이동욱 등 톱스타가 총출동해 제작 단계에서부터 엄청난 관심을 받은 '도깨비'는 첫 방송부터 6.3%의 높은 시청률로 스타트를 끊었다.

하지만 'SKY캐슬'의 상황은 전혀 달랐다. 화제성 견인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한류 스타의 출연 한 명 없는 'SKY캐슬'은 방송 전까지만 해도 대중의 관심 밖인 작품이었다. 이에 지난해 11월 23일 방송된 1회 시청률은 1.7%에 불과했다. 하지만 시청자의 반응은 뜨거웠다. 첫 회부터 색다른 소재와 구경 없는 배우들의 연기, 엄청난 몰입도로 뜨거운 반응을 이끌어낸 것. 이에 2회부

터 시청률이 2.7% 포인트나 경중 뛰며 분위기가 달라졌다.

이후 줄곧 무서운 상승세를 타며 방송 10회 만에 10%를 넘어섰고 12.3%를 기록한 12회 방송으로 종전 역대 JTBC 드라마 최고 시청률을 기록하고 있던 '뽀뽀하는 그녀' 마지막회(20회, 12.1%)까지 넘어섰다. 또한 16회 방송만에 시청률 19.2%를 기록, 종전의 비지상과 최고 시청률 2위와 3위를 기록하고 있던 tvN '응답하라 1988' 마지막회(20회, 18.8%)와 tvN '미스터 션샤인' (24회, 18.1%)까지 앞질렀다. 이후 2회만에 역대 비지상과 드라마 최고 시청률까지 갈아 치웠다.

하지만 이 과정이 순탄치 않은 안았다. 드라마에 대한 인기가 높아질수록 드라마의 결말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최근에는 온라인과 증권가를 중심으로 17회와 18회 대본이 봉착로 유출되는 최악의 사고까지 겪게 된 것. 대본 하단에는 '차기'

## 황치열, 역대급 정규앨범 예고



가수 황치열이 울겨울 더욱 깊어진 감성으로 돌아온다.

매 앨범마다 음악성 성장을 이루며 한류 발라드로 거듭난 황치열이 어느덧 두 번째 정규앨범 발매를 앞두고 있다.

이에 데뷔 이후 꾸준한 노력으로 글로벌 스타로 우뚝 선 황치열의 역사를 되돌아보며, 이번 두 번째 정규앨범 'The Four Seasons(더 포 시즌스)'을 손꼽아 기다릴 수밖에 없게 만드는 기대 포인트 세 가지를 짚어봤다.

먼저 12년 만에 발표하는 정규앨범이다.

2007년 데뷔앨범 '오감'으로 데뷔한 황치열은 무려 12년 만에 두 번째 정규앨범을 발표한다. 새 정규앨범 'The Four Seasons'은 황치열이 1년 365일 팬들과 함께 하고픈 마음을 담아 사계절 내내 들을 수 있는 음악들이 수록됐다.

앞서 황치열은 2017년 6월 발표한 첫 번째 미니앨범 'Be ordinary'로 초동 판매량 10만 3,787장을 기록한 데 이어 2018년 4월 두 번째 미니앨범 'Be myself'로 초동 판매

량 10만 9,406장을 달성했다. 이렇듯 자체 기록을 경신하며 놀라운 성장을 보여준 만큼 이번 정규앨범으로는 어떤 기록을 세울지 궁금증을 모은다.

두 번째로 황치열이 전곡 작사에 참여했다는 점이다.

이번 정규앨범에는 타이틀곡 '이별을 걷다'를 포함해 사랑의 사계절을 다룬 총 11트랙이 수록됐다. 황치열만의 감성으로 사랑의 시작부터 이별,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이야기한다.

또 12년 만에 발표하는 정규앨범인 만큼 황치열은 전곡 작사에 참여하는 등 남다른 열정을 불태웠다. 모든 곡에 황치열의 손때가 묻은 만큼 팬들의 기대감이 최고조에 달한다.

세 번째로 아이돌 컴백 러시 속 보여줄 솔로 파워이다.

1월 가요계는 인기 아이돌 그룹이 연이어 컴백하며 한바탕 컴백 대전이 펼쳐졌다. 이 가운데 황치열이 남자 솔로 가수로서 다시 한 번 막강한 파워를 발휘할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된다.

황치열은 앞서 '되돌리고 싶다', '별, 그대', '그대가 내 안에 박혔다' 등 발표하는 곡마다 음원차트에서 두각을 드러내며 '믿고 듣는 발라드'로 입지를 다져온 만큼, 이번 신곡 '이별을 걷다' 역시 황치열의 감성 발라드 리스너들의 겨울 감성을 자극할 예정이다.

신곡 '이별을 걷다'는 이별을 앞둔 남자의 감정을 담은 곡으로, 떠나는 순간까지 모든 걸 주고픈 남자의 따스한 진심을 그렸다.

황치열은 21일 오후 6시, 각종 음원사이트를 통해 두 번째 정규앨범 'The four Seasons'를 발표한다.

## '열혈사제' 티저...SBS 금토 드라마 시대 개막 예고



## '아는형님' 이유리, 연민정 지운 예능감

배우 이유리가 '아는형님'에서 예능 열정을 불태웠다.

19일 방송된 JTBC '아는형님'에는 이유리가 단독으로 출연했다. 이날 방송에서 이유리는 악역 이미지를 벗고 "귀엽고 사랑스러운 이미지를 어필하고 싶다"고 이야기했다.

강호동의 유령어인 "없었음~"까지 귀엽게 따라한 그였지만 '아는형님' 멤버들은 "더 무섭다"고 말하며 두려워했다.

특히 이유리는 '투명인간'에서 함께 했던 강호동을 들었다 왔다 했다.

SBS 첫 금토드라마 '열혈사제'의 티저가 공개됐다.

SBS가 '드라마 왕국 SBS'라는 가치를 내걸고 금요일과 토요일 밤 10시 황금 시간대에 드라마를 전면 배치해 안방극장 공략에 나선다. 그 첫 주자는 김남길, 김성균, 이하늬 주연의 '열혈사제' (극본 박재범/연출 이명우/제작 삼화네트웍스). 2월 15일 금요일 밤 10시 첫방송을 확정하고 2019년 SBS 드라마를 이끄는 선봉에 선다.

'열혈사제'는 다혈질 가톨릭 사제와 바보 형사가 살인 사건으로 만나 어영부영 공조수사를 시작하는 익스트립 코믹 수사극. '굿닥터', '김과장'을 통해 탄탄한 필력을 선보인 박재범 작가와 '편지', '웃속' 등에서 탁월한 연출력을 인정받은 이명우PD가 의기투합해 기대를 높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열혈사제'의 티저 영상이 공개돼 이목을 집중시켰다. 티저 영상은 검은 사제복을 입은 김남길(김해일 역)의 비장한 발걸음으로 시작된다. 이어 둘러차기 한 방으로 조폭을 제압하는 김남길의 모습이 펼쳐진다. 나쁜 놈들을 때려잡는 이제껏 보지 못한 새로운 사제 캐릭터의 등장이 보는 이들에게 짜릿함을 선사한다.

'다혈질 사제' 김남길과 바보 형사 김성균(구대영 역)의 티격태격 공조수사는 벌써부터 큰 웃음을 예감했다. "성질부리거나, 막 때려부수고 그러면 안돼요"라고 단단히 당부하는 김성균과 이에 대충 대답하는 김남길, 여기에 그들의 막는 허당기치는 '욕망 걸사' 이하늬(박경신 분)가 등장하고, 김남길과 앙숙극미를 만들어낸다. 세 사람의 범상치 않은 캐릭터 매칭은 본 방송에 대한 기대를 치솟게 했다.

한편 SBS '열혈사제'는 2월 15일 금요일 밤 10시 첫 방송된다.

오늘의 운세 2019년 1월 21일 월요일 (음력 12월 16일)

<p><b>▶ 쥐띠</b> 영리한 두뇌로 무엇이든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하지만 결단성 부족으로 중단하는 수가 많다. 남들이 보기에는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부부라고들 하지만 아픈 속마음 누가 알 아줄까.</p>	<p><b>▶ 용띠</b> 모든 일은 출발이 중요하다. 비, 사, 오 성씨는 필요 이상으로 많은 사람을 끌어들이면 복잡해진다. 과감하게 시작한 일은 자신있게 추진하면 성공할 수 있다. 친구 사정 봐 주다가 가정에 누를 끼치니 자중함이 좋겠다.</p>	<p><b>▶ 원숭이띠</b> 법을 다루는 사람은 정확한 판단으로 억울함이 없도록 하라. 말 한마디 잘못으로 평생 후회하며 살아갈 수 있다. 1, 3, 7월생 가정은 전국임을 알라. 가정의 화목만이 자녀 이타를 막을 수 있고 본인의 건강 또한 지킬 수 있다.</p>
<p><b>▶ 돼지띠</b> 지난친 경쟁의식은 서로 피해만 입게 만든다. 양보하면서 순리대로 처신해야 한다. 나, 비, 토 성씨는 문제가 커지면 감당하기 힘든 일이 생길 수 있다. 꼬리가 길면 잡히는 격이다. 1, 5, 9월생은 항상 언행 조심.</p>	<p><b>▶ 돼지띠</b> 장난삼아 몇 자 적은 문서가 법적인 효력을 발생해 문제를 일으킬 수 있겠다. 3, 6, 8월생은 무슨 일든 다시 한번 생각하는 여유를 가져라. 그, 비, 오 성씨는 별거도 오래 하면 이혼한 것과 같다.</p>	<p><b>▶ 닭띠</b> 마음이 두 곳에 있다. 한 가지 일도 제대로 이루지 못하고 중도에 방향하는 수다. 바로 명령해서 통솔할 때와 머리로 싸우는 것은 다르다. 그, 비, 오 성씨는 지혜를 모아 울릴 것. 2, 6, 9월생은 최선만이 나의 길임을 알라.</p>
<p><b>▶ 호랑이띠</b> 본이 아니게 타인으로 인해 자신이 피해를 볼 수 있다. 무슨 일든 신상속고해서 처신하라. 그, 사, 토 성씨는 아랫사람 일로 구설이 들리면서 마음 상할 수 있다. 긍정적으로 바라보면 세상은 재미있는 일이 많다. 답답함은 동쪽 사람에게 풀려라.</p>	<p><b>▶ 말띠</b> 재주가 많다 보면 자기 궤에 넘어갈 염려 있다. 그, 나, 지, 흥 성씨는 연상이나 연하의 사람 유혹에 넘어가 평생 후회할 수 있다. 4, 5, 9월생은 사업이나 직장에는 좋은 평이 들리지만 애정에는 갈등이 많겠다. 서, 복쪽 사람 만남이 좋을 듯.</p>	<p><b>▶ 개띠</b> 시기적으로 고전할지라도 최선을 다하며 인내할 때 좋은 결과 있겠다. 감연이설에 넘어가지 말고 정당하게 처신하라. 2, 5, 10월생은 가정을 지킬 때 사업도 서서히 풀릴 듯. 불륜이라 생각되면 냉정히 끊어라. 그, 표, 흥 성씨는 자신감이 최우선임을 알라.</p>
<p><b>▶ 토끼띠</b> 확장하는 것보다 현재대로 고수하는 것이 안전한 편이다. 혼자 문제는 민고 방심하다가 차 떠나고 손드는 격. 흔들리는 마음을 슬기롭게 다스림이 좋겠다. 사랑은 언제나 진실된 표현이 필요할 때. 3, 9, 11월생 부부는 상대에게 아량을 가져라.</p>	<p><b>▶ 양띠</b> 재정적으로 어려울지라도 조금만 참으면 좋은 결과 있겠다. 5, 9, 10월생은 있는 것 없는 것 다 쏟아서 시작했으니 힘써 노력하면 좋은 성과 있을 듯. 나, 사, 토 성씨는 지혜롭게 대처하라. 다른 사람의 유혹은 마음과 금전에서 오는 것.</p>	<p><b>▶ 돼지띠</b> 자기 기량을 마음껏 발휘할 때가 왔다. 봄에 뿌린 재만이 가을을 기다리며 희망을 갖는다. 노력도 없이 큰 수확을 바라는 것은 잘못된 생각임을 알라. 사, 오, 표 성씨는 부부 말다툼에 형제간 눈치만 보일 듯하다. 형제 도움이 행운 가져올 듯.</p>